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102.5로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 - 1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증가, 대형마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6.8%, 대형마트 9.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4% 감소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가전, 의복, 음식료품 판매호조로 6.87% 증가 ○ 1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국과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2.9% 상승,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보합,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6%,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6.5% 각각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보합인 60.9%로 나타남 ○ 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4.2% 감소, 전국대비 청년취업 문제 여전히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4천명(-1.1%) 감소한 4,784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5천명(-0.9%) 감소, 여자는 29천명(-1.4%) 감소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3%) 4.5%p 차이를 보임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한 6.0%, 전국대비 1.0%p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6.0%로, 남자는 6.7%, 여자는 5.1%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7.2%로 전국의 고용률(56.6%)보다 0.6%p 높은 수준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5조 3,56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8%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및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57.8%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39.4% 증가 ○ 1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보합에서 상승 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강남지역(0.1%)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월 보합에서 상승 반등하였고, 강북지역(0.1%)도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상승 전환 ○ 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방학 학군수요 증가로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강세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6조 2,70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94% 감소 ○ 12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71개로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 ○ 12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62개로 전년동월대비 48.3% 감소 ○ 1월 서울시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수출은 31.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8.4%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의 순 - 1월 서울의 수입은 72.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2.8%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 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의 순

| 생·산 |

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

■ 전국의 1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36.9% 증가

-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음료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에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조업일수 증가와 지난 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36.9%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건사회복지,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늘어난 운수, 금융·보험 등에서 호조를 보여 4.6% 증가

■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

- 서울시 생산지수는 102.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섬유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의복 및 모피, 기타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7개월째 성장세 유지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및 경공업 부문 각각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6.9% 상승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냄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2%로 2개월째 플러스 성장세로 유지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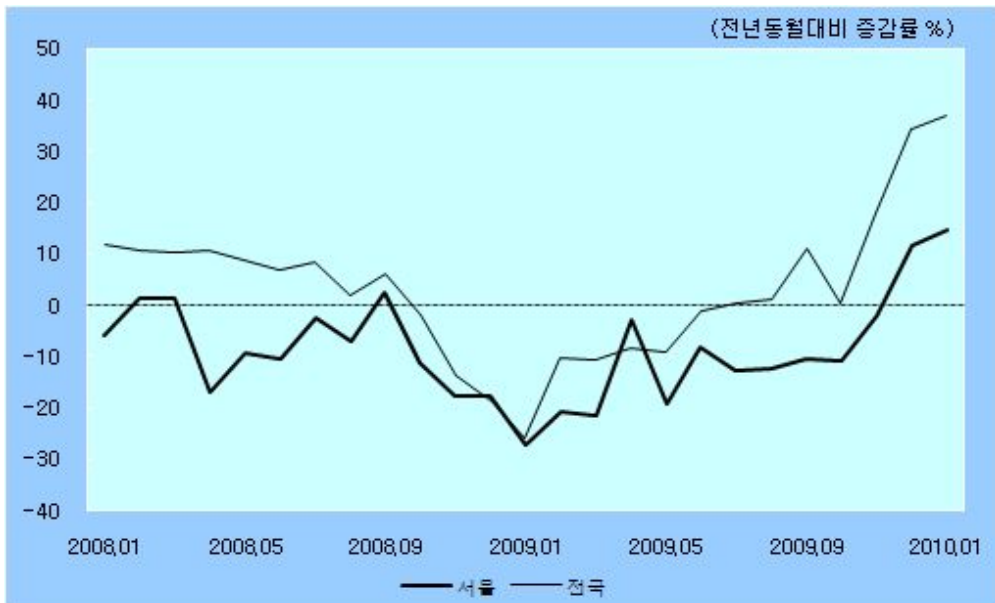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25.7 (2.9)	11.1 (4.2)	0.3 (-3.0)	18.0 (1.8)	34.3 (2.4)	36.9 (0.0)
	서울 (제조업)	-27.2 (-11.3)	-10.4 (11.1)	-10.9 (-1.2)	-2.1 (-5.9)	11.5 (11.3)	14.8 (-8.6)
	중공업	-45.3 (-32.0)	-30.7 (-9.6)	-20.5 (2.9)	-0.2 (4.8)	5.2 (13.6)	26.9 (-18.0)
	경공업	-16.9 (0.3)	1.4 (22.2)	-6.2 (-2.7)	-3.1 (-10.4)	15.0 (10.1)	10.2 (-3.9)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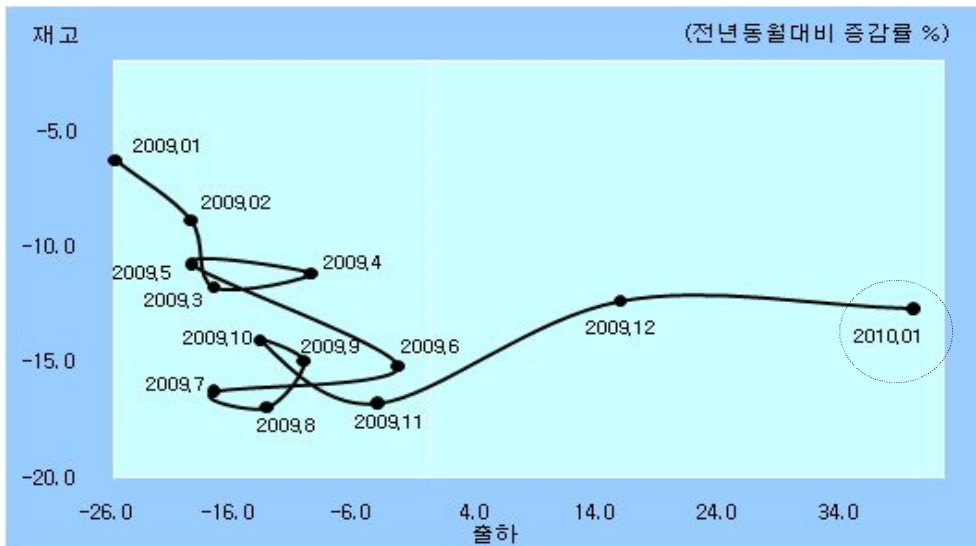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10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5.9로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 제품 등에서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29.0(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4.7% 증가,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섬유제품, 전기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가스업, 의복 및 모피, 인쇄 및 기록매체 등에서 증가
 -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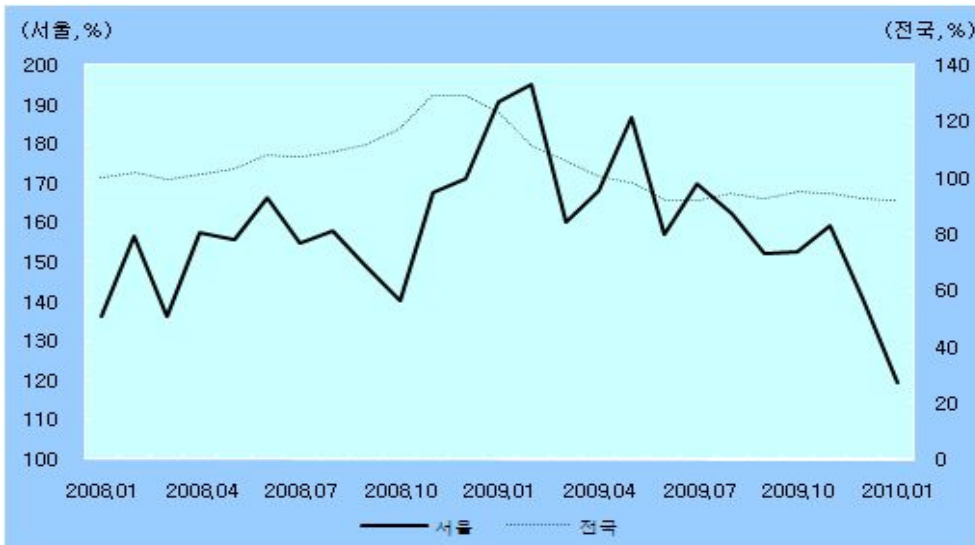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1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1.7%로 전월대비 0.9%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19.4%로 전월대비 21.2%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68.1%p 증가한 176.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51.7%p 감소한 99.5%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P	11월p	12월p	1월p	
재고율	전국	123.2	92.8	95.0	94.3	92.6	91.7	-0.9
	서울	190.9	152.0	152.5	159.4	140.6	119.4	-21.2
	중공업	193.4	136.9	146.9	118.7	108.4	176.5	68.1
	경공업	181.6	151.3	148.1	173.8	151.2	99.5	-51.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전국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7,556억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는 9.0% 감소
- 유형별로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준내구재가 5.2% 증가하였고, 서적·문구,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증가, 대형마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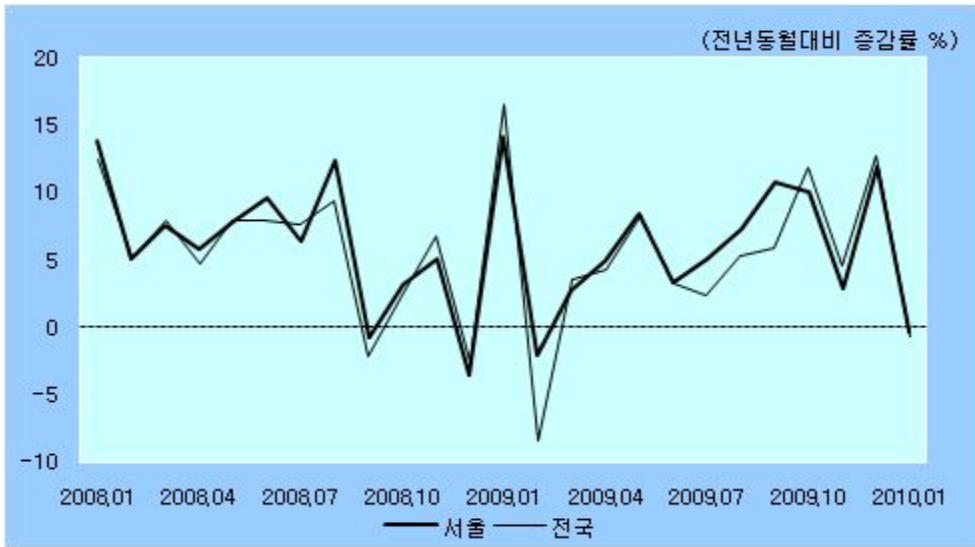
-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77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6.8% 증가, 대형마트 9.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신규사업체 증가(전년23개 → 금년24개) 및 가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운동오락용품, 신발 등의 판매호조로 6.8% 증가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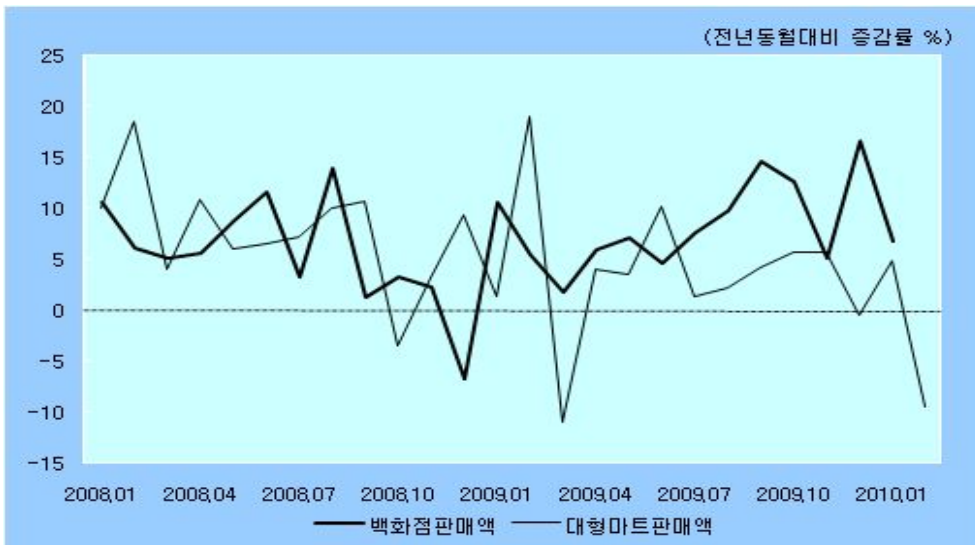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1월p	9월	10월	11월p	12월p	1월p	
판매액	전국	4791.0 (16.6)	4618.6 (5.9)	4662.1 (11.8)	4654.9 (4.6)	5020.0 (12.8)	4755.6 (-0.7)
	서울	1583.5 (14.2)	1574.4 (10.7)	1575.0 (10.0)	1585.3 (2.9)	1705.1 (11.9)	1577.9 (-0.4)
	백화점	887.3 (10.7)	899.1 (14.7)	970.9 (12.7)	978.0 (5.1)	1048.3 (16.7)	947.4 (6.8)
	대형마트 (할인점)	696.2 (19.1)	675.2 (5.7)	604.1 (5.8)	607.3 (-0.4)	656.7 (4.9)	630.4 (-9.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3개월째 상승

-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2로 전월대비 0.4%로 상승하여 11월 이후 3개월째 상승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5% ,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상승

■ 1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전도시:114.2, 2005년=100)로 전월대비 0.4%(전도시:0.4%), 전년동월대비 2.7%(전도시:3.1%) 각각 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9% 상승,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0% 보합
- 서비스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0% 각각 상승,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4% 하락,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4% 상승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6.5%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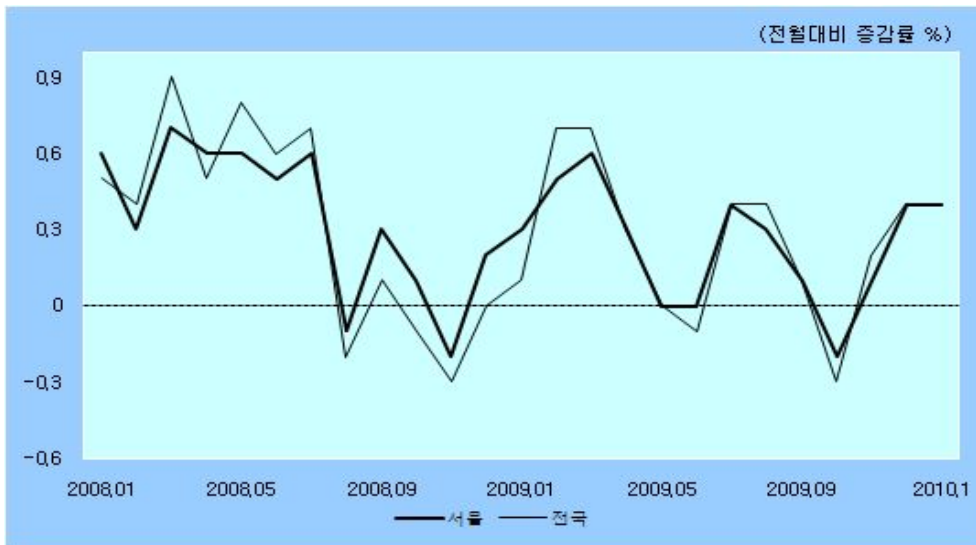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도시:0.4%), 전년동월대비 3.4% (전도시:3.8%)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5%(전도시:5.5%), 전년동월대비 4.5%(전도시:5.2%) 각각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비	전국	0.1 (3.7)	0.4 (2.2)	0.1 (2.2)	-0.3 (2.0)	0.2 (2.4)	0.4 (2.8)	0.4 (3.1)	
	서울	0.3 (3.7)	0.3 (2.6)	0.1 (2.4)	-0.2 (2.2)	0.1 (2.5)	0.4 (2.6)	0.4 (2.7)	
	상품 성질별	상품	0.5 (4.4)	0.4 (3.2)	0.2 (3.0)	-0.5 (2.5)	0.2 (3.8)	0.6 (4.2)	0.6 (4.2)
		서비스	0.1 (3.4)	0.2 (2.3)	0.0 (2.2)	0.0 (2.0)	0.1 (1.7)	0.2 (1.8)	0.3 (2.0)
	생활물가	0.4 (2.9)	0.3 (2.0)	0.2 (2.0)	-0.3 (2.0)	0.0 (2.4)	0.4 (3.2)	0.6 (3.4)	
	신선식품	7.3 (0.3)	1.7 (5.7)	-1.6 (5.8)	-2.8 (5.0)	-3.3 (3.6)	5.0 (5.2)	6.5 (4.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통계청에서 연 1회 발표하는 전국 및 서울지역의 GRDP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액의 전년비는 3.8%로 전국(4.9%)대비 1.0%p 낮음
 - 2008년 전국의 GRDP는 1,031조원으로 전년비 4.9% 증가, 서울의 경우 3.8% 증가한 245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대비 서울의 2008년 GRDP는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액의 연평균은 4.7%로 전국대비 1.3%p 낮음
 - 2004~2008년의 GRDP 연평균은 전국의 경우 6.0%, 서울의 경우 4.7% 로 나타남
 - 2008년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액(3.8%)은 연평균(4.7%)에 비해 0.9%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2008년도 GRDP의 경우 2007년도 GRDP에 비해 증가율이 3.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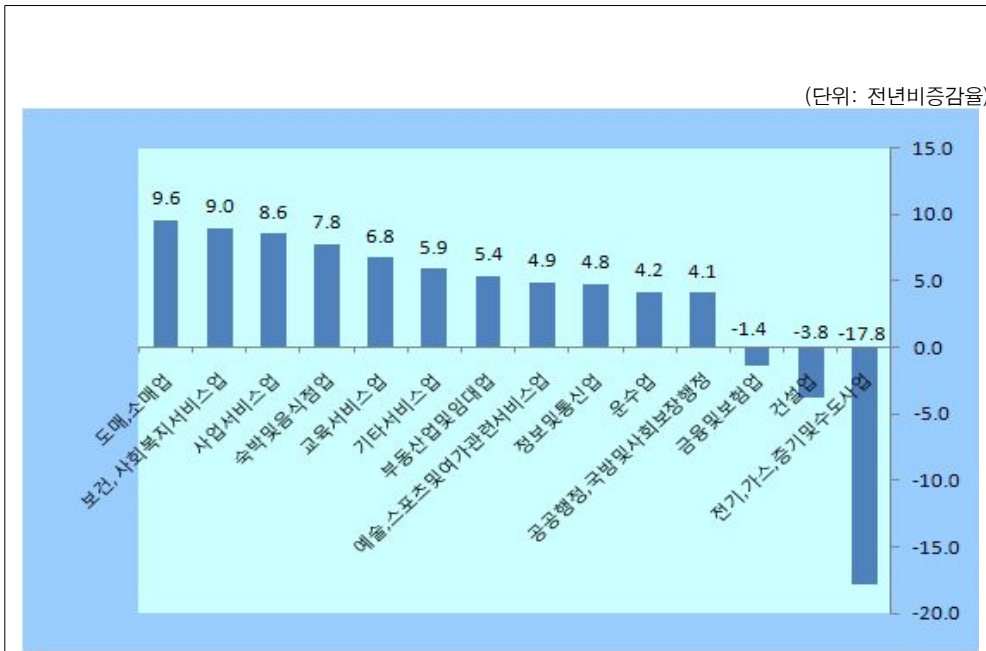
- 2008년 서울의 서비스 부문의 증감율 도,소매업 9.6%로 1위
 - 전국 지역내총생산 중 서비스부문 증감율은 사회서비스업(9.3%), 도소매업(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0.3%), 금융 및 보험업(-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4.8%)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지역내총생산 중 서비스부문 증감율은 도소매업(9.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0%), 사업서비스업(8.6%),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7.8%)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1.4%), 건설업(-3.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7.8%)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지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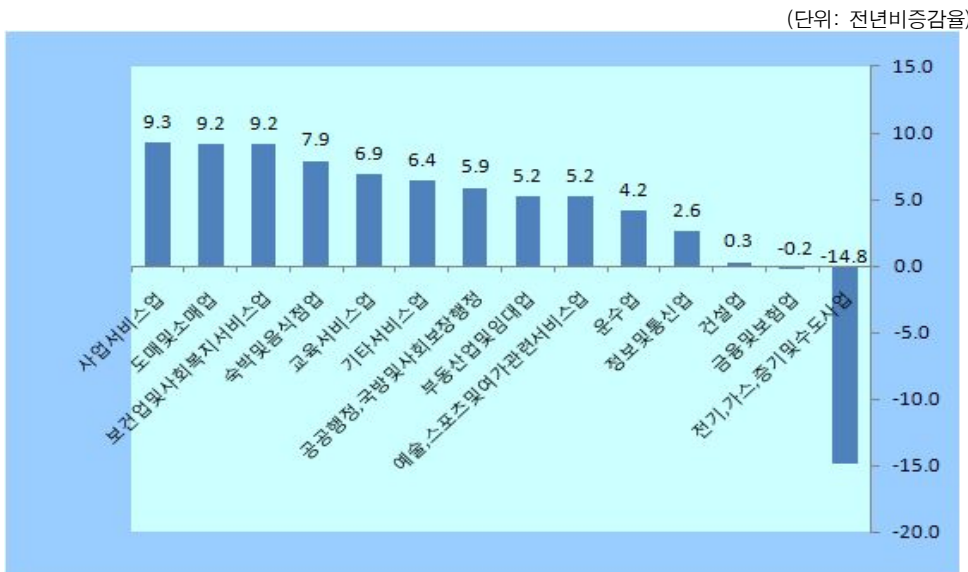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전년비증감율)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GRDP	829,468,350	869,304,594	912,925,588	983,030,289	1,031,457,161
		(7.4)	(4.8)	(5.0)	(7.7)	(4.9)
서울	GRDP	198,925,587	208,899,249	220,134,606	236,516,741	245,582,059
		(2.1)	(5.0)	(5.4)	(7.4)	(3.8)

주: ()안은 전년비증감율
 자료: 통계청



<그림> 서울 지역내총생산 서비스 부문



<그림> 전국 지역내총생산 서비스 부문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1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전국 1월 15세 이상인구는 40,3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2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0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3천명(1.6%)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213천명으로 245명(1.8%)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868천명으로 128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1월 15세 이상인구는 8,3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0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0.7%)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남자는 72.5% 여자는 49.9%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0.8%)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제활동인구	전국	-0.1 (-1.3)	0.6 (-0.9)	0.7 (0.4)	0.3 (0.1)	0.2 (-0.1)	0.1 (-2.3)	1.6 (0.1)
	서울	-1.4 (0.1)	-2.5 (-1.9)	-1.7 (0.1)	-1.2 (0.3)	0.1 (1.2)	0.7 (-0.2)	0.7 (0.1)
	남자	-0.8 (0.3)	-2.3 (-1.8)	-1.6 (-0.2)	-1.2 (0.2)	0.1 (1.5)	1.0 (-0.2)	0.7 (0.0)
	여자	-2.3 (-0.3)	-2.8 (-2.0)	-1.8 (0.5)	-1.2 (0.5)	0.0 (0.8)	0.4 (-0.1)	0.8 (0.2)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59.5	61.1	61.3	61.3	61.1	59.7	59.6
	서울	60.9	60.1	60.2	60.4	61.1	60.9	60.9
	남자	72.5	71.8	71.6	71.7	72.8	72.6	72.5
	여자	49.9	49.1	49.4	49.6	50.0	49.9	49.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1월 서울의 청년취업 4.2%로 감소폭 심화

- **전국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5천명 증가, 고령층 취업자도 증가**
 - 1월 취업자는 23,86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4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명(0.7%) 증가하였고, 여자는 9,374천명으로 86천명(-0.9%) 감소하여, 여성 취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15~19세, 50대는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0.2% 각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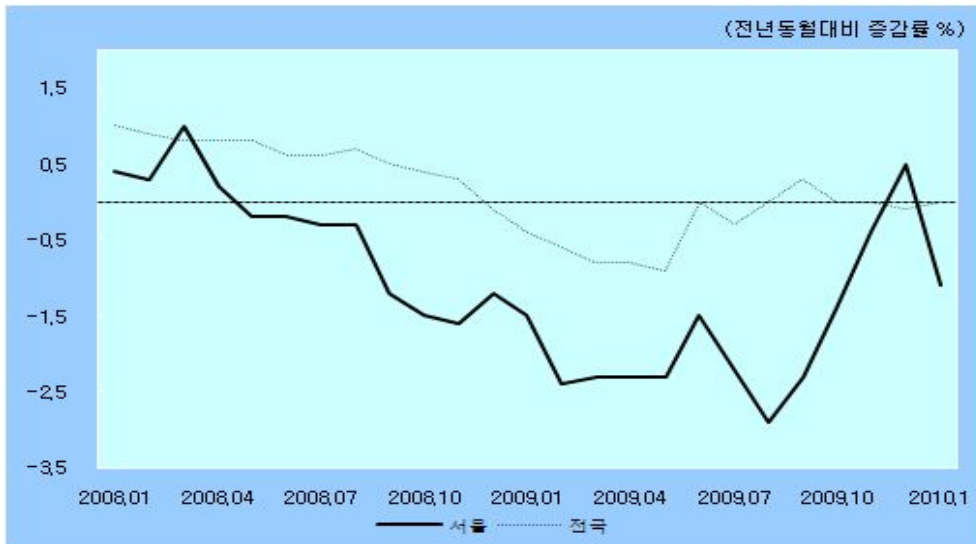
- **1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54천명 감소, 청년층 취업자 수 4.2% 감소**
 - 서울의 취업자는 4,7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천명(-1.1%)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47천명, 여자는 2,0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5천명(-0.9%) 이, 여자는 29천명(-1.4%)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 41천명(3.0%), 전가운수통신금융업 21천명(2.8%)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57천명(-14.6%), 제조업 41천명(-7.5%),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18천명(-1.0%)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2%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3%)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보다 취업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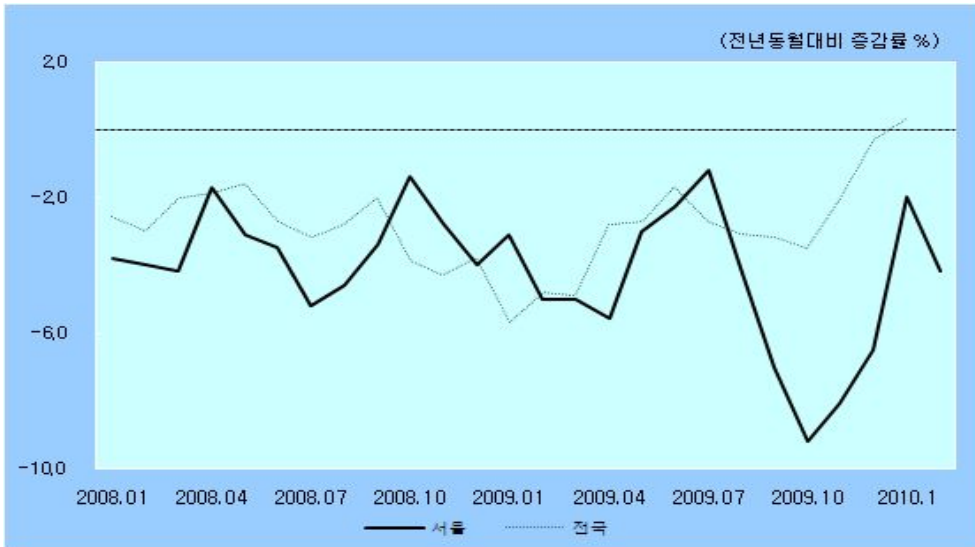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취업자	전국	-0.4 (-1.7)	0.0 (-0.9)	0.3 (0.8)	0.0 (0.2)	0.0 (-0.2)	-0.1 (-2.4)	0.0 (-1.6)
	서울	-1.5 (-0.3)	-2.9 (-1.5)	-2.3 (0.3)	-1.4 (0.8)	-0.4 (0.8)	0.5 (0.0)	-1.1 (-1.9)
	남자	-1.4 (-0.1)	-3.2 (-1.4)	-2.6 (0.0)	-1.3 (1.0)	0.0 (1.1)	1.4 (0.1)	-0.9 (-2.4)
	여자	-1.6 (-0.6)	-2.4 (-1.7)	-2.0 (0.8)	-1.5 (0.4)	-0.9 (0.4)	-0.7 (-0.2)	-1.4 (-1.3)
청년층 취업자	전국	-5.7 (0.5)	-3.1 (-3.1)	-3.2 (-1.9)	-3.5 (-0.9)	-2.0 (1.7)	-0.3 (0.6)	0.3 (1.1)
	서울	-5.0 (1.6)	-7.0 (-4.0)	-9.2 (-3.3)	-8.1 (-0.9)	-6.5 (1.6)	-2.0 (2.5)	-4.2 (-0.7)
고령층 취업자	전국	1.3 (-4.3)	4.7 (0.1)	4.6 (2.0)	4.9 (0.6)	3.2 (-2.5)	1.6 (-9.8)	0.2 (-5.6)
	서울	0.1 (0.1)	2.2 (-1.4)	4.4 (2.9)	7.3 (2.1)	10.0 (1.3)	10.9 (-1.4)	3.3 (-6.7)
	55-59세	4.0 (2.4)	0.3 (-2.3)	2.9 (2.0)	4.8 (0.6)	6.2 (2.0)	7.9 (-0.6)	3.0 (-2.2)
	60세 이상	-3.1 (-1.8)	3.7 (-0.7)	5.6 (3.6)	9.3 (3.2)	13.1 (0.7)	13.4 (-2.0)	3.7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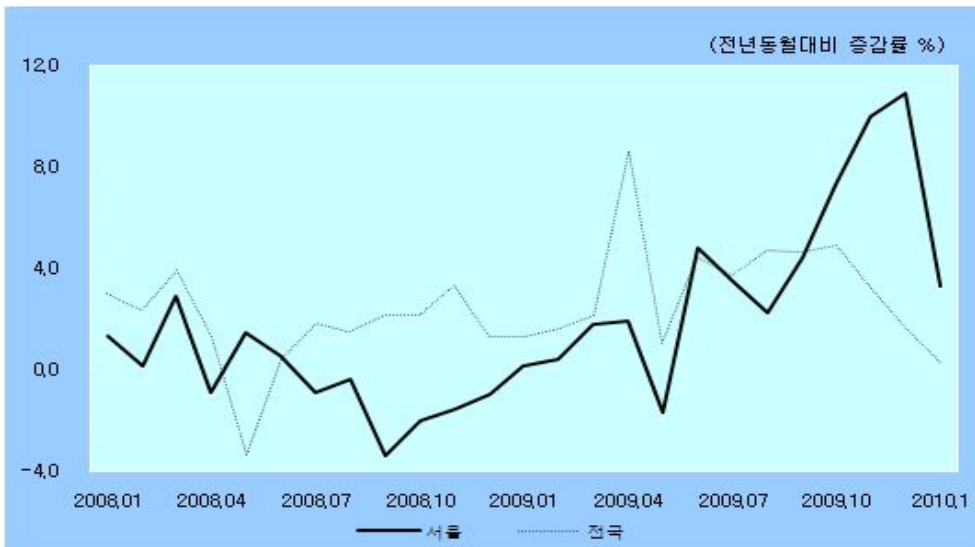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각각 증가, 기능·기계조작·조립 등은 감소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158천명, -13.2%), 서비스판매종사자(-45천명, -0.8%),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6천명, -0.2%)는 감소
 - 사무종사자(122천명, 3.5%), 전문·기술·행정관리자(101천명, 2.1%)는 증가

-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6,569천명으로 240천명(-3.5%)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6,297천명으로 244천명(1.5%)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609천명, 6.7%)는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244천명, -12.4%), 임시근로자(-121천명, -2.4%)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36시간 이상 취업자 1.8%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 0.1% 감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20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명(1.8%) 증가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9,030천명으로 21천명(-0.1%) 감소
 - 18시간미만 취업자(1,082천명) 중 「경제적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시간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1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4.2%)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산업별	제조업	-13.5 (2.9)	-14.3 (-3.6)	-21.7 (-1.1)	-17.5 (0.9)	-6.6 (1.2)	-4.9 (1.1)	-7.5 (0.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3 (-0.7)	-1.4 (-1.3)	0.4 (0.5)	0.9 (0.8)	0.4 (0.8)	1.2 (-0.2)	-0.3 (-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7 (-1.8)	4.9 (-1.8)	4.0 (-0.5)	3.6 (1.1)	2.1 (0.1)	1.2 (-1.5)	-1.0 (-4.0)
	도소매·음식숙박	-1.9 (-1.1)	-4.3 (0.0)	0.6 (1.5)	1.1 (0.1)	3.0 (1.5)	2.4 (0.9)	3.0 (-0.5)
	전기·운수·통신·금융	-0.6 (3.4)	-1.2 (-1.6)	3.7 (1.2)	3.5 (1.1)	1.2 (0.5)	5.2 (2.0)	2.8 (1.0)
	건설업	-4.5 (-1.5)	-18.9 (-2.3)	-20.1 (0.4)	-16.2 (1.3)	-15.8 (2.4)	-10.6 (-2.0)	-14.6 (-5.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2 (-0.3)	2.3 (-1.0)	1.6 (0.1)	3.7 (-0.2)	2.4 (0.2)	2.0 (-0.5)	1.2 (-1.1)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7.3 (-1.7)	-11.5 (-2.3)	-11.9 (-0.1)	-9.0 (3.4)	-3.3 (2.4)	-1.9 (-1.8)	-4.9 (-4.7)
	서비스·판매종사자	0.6 (0.4)	-4.9 (-1.7)	-0.8 (0.6)	0.1 (1.8)	-2.5 (-0.7)	-1.2 (0.6)	-0.4 (1.2)
	사무종사자	6.7 (0.8)	6.3 (-1.1)	4.9 (1.0)	1.1 (-2.9)	3.3 (1.7)	4.5 (2.5)	-0.1 (-3.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2 (0.1)	-1.5 (-1.4)	-2.0 (0.5)	-0.8 (0.9)	0.3 (1.0)	0.8 (-0.2)	-2.3 (-3.0)
	비임금근로자	-5.1 (-1.5)	-6.8 (-1.9)	-3.2 (-0.3)	-3.1 (0.3)	-2.4 (0.2)	-0.4 (0.5)	2.6 (1.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1월 서울의 실업률 6.0%로, 전국대비 1.0%p 높은 수준

- **전국의 실업률 5.0% 상승하였으며,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전국의 1월 실업자는 1,2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8천명(43.4%) 증가
 - 성별로 보면 실업자는 남자가 7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명(27.7%) 증가하였고, 여자는 4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4천명(76.2%) 증가
 -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여자는 5.0%로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60세이상 증가가 두드러짐, 실업률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전국(5.0%)대비 1.0%p 높은 수준**
 - 1월 실업자는 3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명(42.5%)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29.4%), 여자는 109천명으로 46천명(74.2%)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6.0%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로 전년동월대비 1.5%p, 여자는 5.1%로 2.2%p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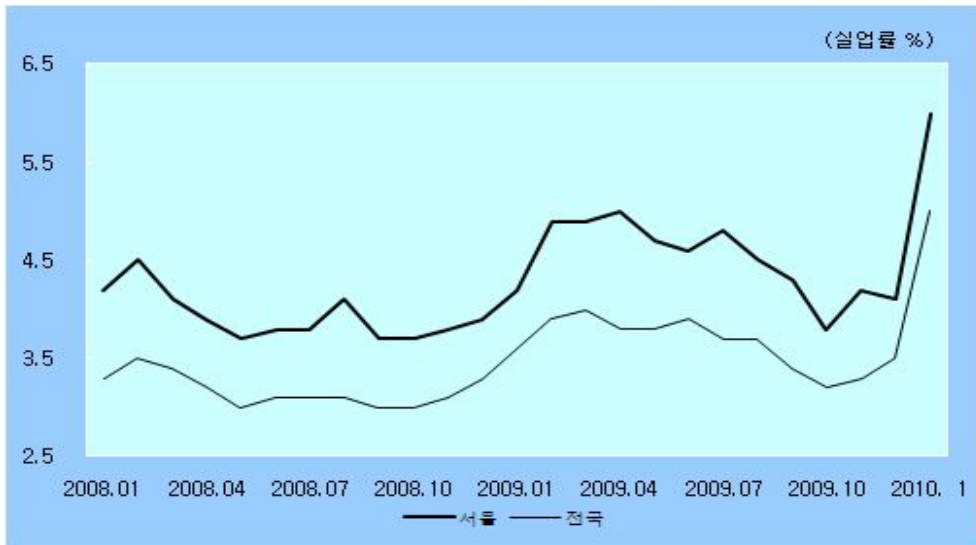
- **서울의 고용률 57.2%로 전국의 고용률(56.6%)보다 0.6%p 높은 수준**
 - 전국의 1월 고용률은 56.6%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여자는 45.4%로 1.0%p 하락,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7.2%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6%로 전년동월대비 1.1%p, 여자는 47.4%로 1.1%p 각각 하락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6.6%)에 비해 0.6%p 높은 수준임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실업률	전국	3.6	3.7	3.4	3.2	3.3	3.5	5.0	
	서울	4.2	4.5	4.3	3.8	4.2	4.1	6.0	
	성별	남자	5.2	5.2	5.1	4.3	4.7	4.4	6.7
		여자	2.9	3.4	3.2	3.2	3.6	3.6	5.1
고용률	전국	57.3	58.8	59.2	59.3	59.1	57.6	56.6	
	서울	58.3	57.5	57.6	58.0	58.5	58.4	57.2	
	성별	남자	68.7	68.0	68.0	68.7	69.4	69.4	67.6
		여자	48.5	47.5	47.8	48.0	48.2	48.1	47.4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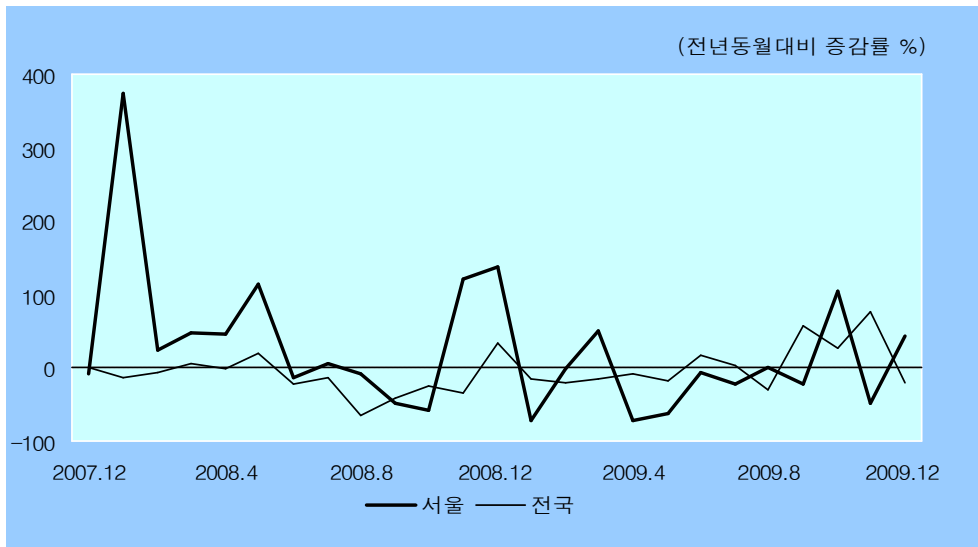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5조 3,56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8%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7조 6,10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5%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30.4%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및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57.8% 증가, 민간 부문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39.4% 증가
- 공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축부문 39.4%, 토목부문 72.3% 각각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1,879	4,352	8,741	10,415	14,425	17,611	-19.5	22.1	
서울	3,752	864	840	1,925	1,585	5,357	42.8	238.0	
발주 자별	공공	690	102	278	229	512	1089	57.8	112.7
	민간	3,046	758	400	1,679	1,061	4,247	39.4	300.3
공종 별	건축	3,319	800	487	1,715	1,095	4,627	39.4	322.6
	토목	423	62	352	210	490	730	72.3	49.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 주택매매가격 강남북 모두 보합에서 상승 반등

■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 유지

-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며 장기평균을 하회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단독연립주택은 각각 0.1%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지속함

■ 1월 서울 강남북 지역 모두 보합에서 상승 반등

- 서울 강남지역(0.1%)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월 보합(0.0%)에서 상승 반등하였고, 강북지역(0.1%)도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상승 전환됨
- 서울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파트(0.1%)가 2개월간의 보합세를 접고 상승 반등하였고, 단독주택도 0.2%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연립주택(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전국	99.4	101.5	101.6	2.2	0.1
서울	99.3	102.7	102.8	3.5	0.1
아파트	99.1	102.6	102.7	3.6	0.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5	101.9	102.0	2.5	0.1
강남	99.1	103.4	103.5	4.4	0.1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 보합에서 상승 반등

- 강북지역(0.1%)에서는 종로구(0.4%)가 단독연립주택 거래 증가로 크게 상승하였고, 강북구(0.4%)는 경전철 착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유동 일대 단독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함.
- 반면, 노원구(-0.1%)는 매수세 감소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8개월만에 하락 전환됨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 보합에서 상승 전환

- 강남지역(0.1%)에서는 강동구(0.7%)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진척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의 호재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하였고, 동작구(0.4%)는 노량진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고시 이후 단독연립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크게 상승함
- 반면, 금천구(-0.2%)는 거래 감소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5개월 만에 하락전환되었고, 강서구(-0.2%)도 계절적 비수기로 연립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하며 하락전환됨

■ 1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월 29일 기준)은 1,844.35만원으로 전월(1,839.24만원) 대비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00만원), 서초구(2,825만원), 용산구(2,583만원), 송파구(2,500만원), 양천구(2,016만원), 강동구(1,942만원), 광진구(1,87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4만원), 강북구(1,139만원), 중랑구(1,142만원), 도봉구(1,161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확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 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 등의 수요 증가로 일부지역의 전세난이 심화됨
- 수도권(0.2%)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광역시(0.4%)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한 반면, 기타지방(0.2%)은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0.4%, 0.1%, 0.2% 상승하며 아파트의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나타냄

■ 겨울방학 학군 수요 증가로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강세

- 강북지역(0.1%)에서는 종로구(0.7%)가 도심으로의 접근용이성으로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하였고, 광진구(0.4%)는 방학을 맞아 인기 학군지역의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됨. 마포구(0.4%)도 전세물량 부족으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됨
- 강남지역(0.6%)에서는 11개구 전체가 하락지역 없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확대됨 강남구(1.7%)는 겨울방학 학군수요가 본격화되며 가족단위 이주수요 증가로 중대형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서초구(1.4%)도 학군 배정을 염두해둔 수요 유입과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며 규모 전반에 걸쳐 상승폭이 확대됨
- 송파구(0.6%)는 보금자리 주택과 위례신도시 대기자들이 전세를 유지하면서 기존세입자의 재계약 증가로 전세공급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학군수요가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강동구(0.6%)는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구입을 보류한 전세유지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됨
- 서울은 아파트가 0.6%, 단독연립주택이 각각 0.1% 상승하며 아파트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며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된 반면, 단독연립주택은 전월과 동일하게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감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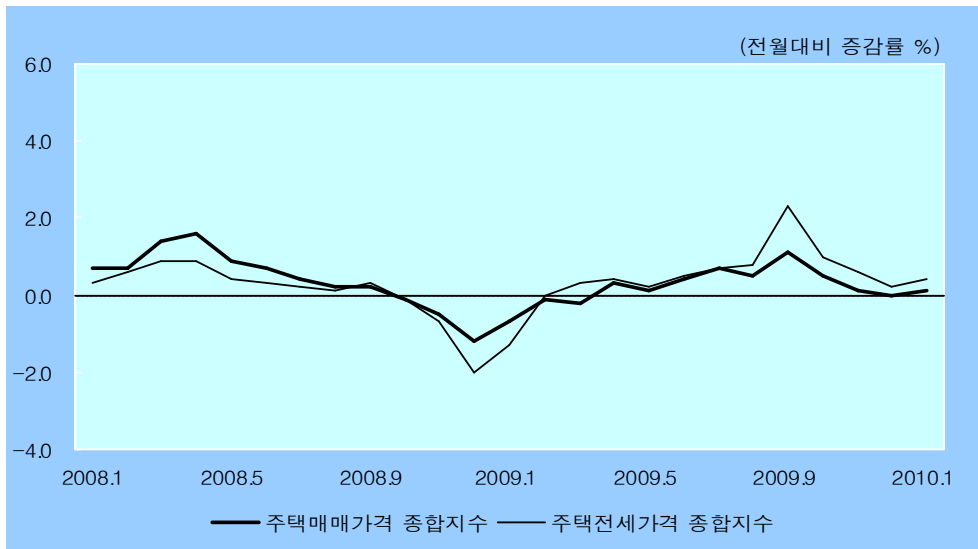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전국	99.1	103.4	103.7	4.7	0.3	
서울	98.7	106.0	106.4	7.8	0.4	
아파트	98.3	108.1	108.7	10.6	0.6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8.9	104.0	104.1	5.3	0.1
지역별 주택전세	강남	98.4	107.9	108.6	10.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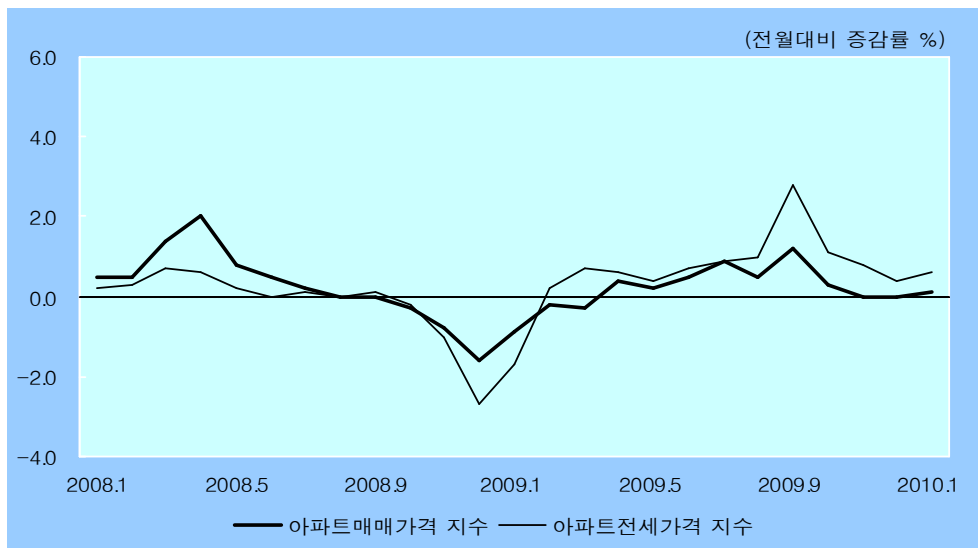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0.7%로 전월(40.6%)보다 0.1%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8월 39.1% → 9월 39.7% → 10월 40.0% → 11월 40.4% → 12월 40.6%)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월 전국 평균 54.0%보다 13.3%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3%p)과 같은 수준을 유지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3.3%, 강남 38.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7%p이며 지난 달(4.8%p)보다 소폭 하락함.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후 등락

금리

-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후 등락
 -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큰 폭 하락한 후, 4.20~4.30% 사이에서 등락
 - 회사채(3년) 금리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
- CD 금리는 연초 소폭 상승
 - CD(91일) 금리는 연초에 소폭 오른 후 2.88%를 유지

주가

- KOSPI 지수 큰 폭 하락
 - 코스피지수는 금년 들어 국내 기업실적 호조 등을 배경으로 1,722p(1.21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조치 등으로 빠르게 하락.
(08년 10.24일 939p → 2009년 11월말 1,556p → 12월말 1,683p → 2010년 1월말 1,602p)
- 1월중 외국인 순매수 지속
 -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계속 순매수하다가 1월 하순 이후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
외국인 순매수: 9월 5.1 조원 → 10월 1.6조원 → 11월 2.0조원 → 12월 2.3조원
→ 2010년 1월 0.7조원(1.22~29일 -1.1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금리	국고채(3년)	3.44	4.40	4.47	4.32	4.24	4.29	0.05
	CD(91일물)	3.22	2.64	2.79	2.79	2.82	2.88	0.06
	콜금리(1일)	2.43	1.99	1.99	2.00	2.00	2.00	0.00
	장단기 금리차 ¹⁾	0.22	1.76	1.68	1.53	1.42	1.41	-0.01
주 가	KOSPI	1,156.37	1659.45	1630.61	1583.47	1646.64	1682.16	35.52
	KOSDAQ	355.1	523.16	501.83	477.15	498.35	535.44	37.09
환율 (W/US\$)	1354.68	1,215.00	1,174.80	1,163.18	1,166.13	1,138.77	-27.36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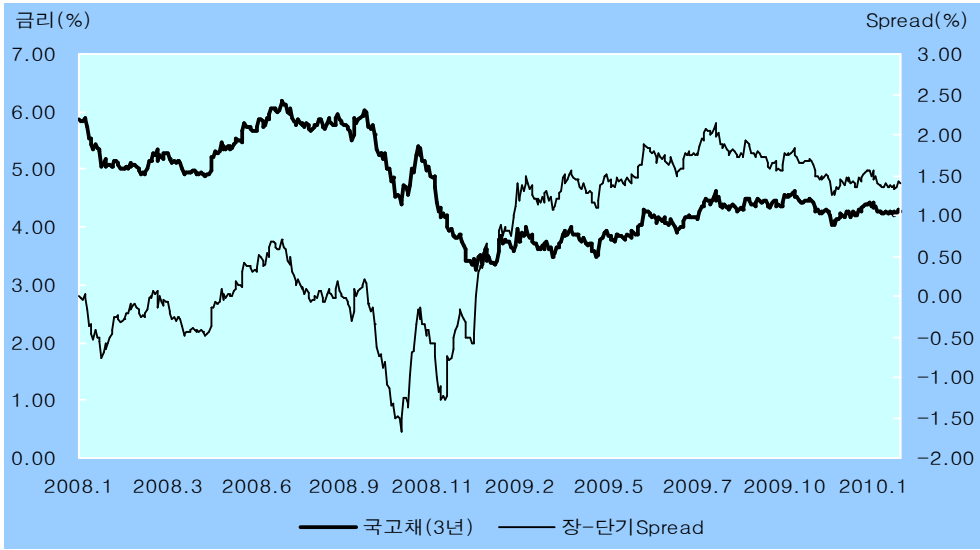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비수기 및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축소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연초 상여금 지급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큰 폭 감소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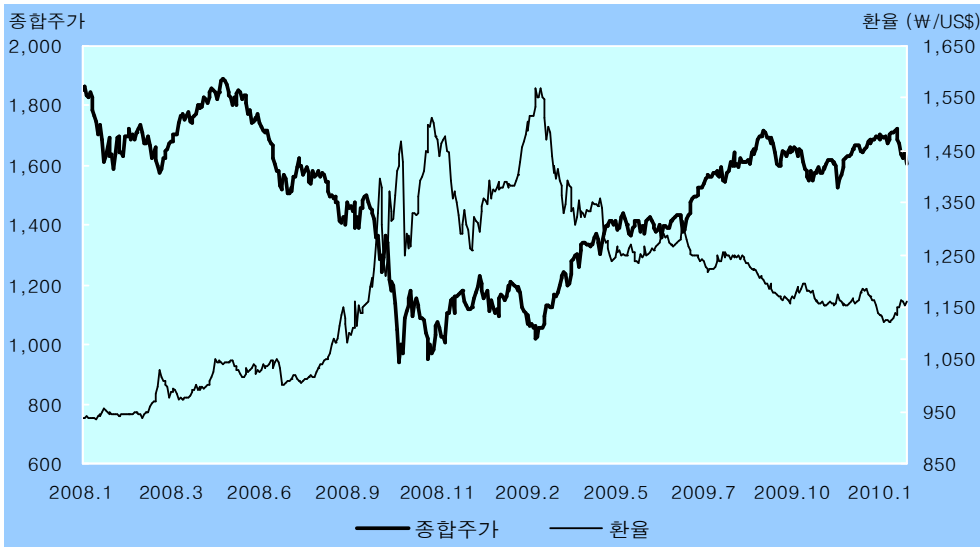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09년	2010년		
							12월	1월		
가계대출 ¹⁾	20.1	-1.0	1.4	2.6	0.5	-1.0	408.6	407.6	-0.24	
주택담보대출 ²⁾	25.4	-0.4	1.4	1.6	2.0	0.6	265.1	265.7	0.2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5	0.0	1.0	-1.5	-1.6	142.3	140.7	-1.1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12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61조 3,503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7,468억원 (0.37%) 감소
- 12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6조 2,70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조 7,949억원(0.94%) 감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예금은행	917,110.10	958,578.1	958,048.5	963,885.1	953,505.2	-10,379.9	-1.08
	비은행기관	284,509.30	298,099.4	300,619.2	302,212.0	307,845.1	5,633.1	1.86
	합계	1,201,619.40	1,256,677.5	1,258,667.7	1,266,097.1	1,261,350.3	-4,746.8	-0.37
서울	예금은행	406,595.40	421,465.7	418,169.7	419,997.6	413,183.5	-6,814.1	-1.62
	비은행기관	85,589.50	90,509.6	91,231.5	91,067.5	93,086.7	2,019.2	2.22
	합계	492,184.90	511,975.3	509,401.2	511,065.1	506,270.2	-4,794.9	-0.94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12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신설법인은 5,424개로 전월비로는 15.7%(734개)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비 42.8%(1,627개) 증가하여 6월부터 7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12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71개로 전월대비 11.7%(207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 비로는 48.4%(643개) 증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0.6%(436개) 증가, 제조업 64.9%(124개) 증가하였 고, 건설 및 설비업은 123.7%(7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797	5,193	4,540	4,690	5,424	734	15.7	1,627	42.8
서울	1,328	1,876	1,704	1,764	1,971	207	11.7	643	48.4
서비스업	1,075	1,471	1,330	1,353	1,511	158	11.7	436	40.6
제조업	191	269	246	275	315	40	14.5	124	64.9
건설 및 설비업	59	131	122	129	132	3	2.3	73	123.7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12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3%로 전월(0.04%)보다 0.01%p 하락
- 전국의 부도업체 수(법인+개인사업자)는 152개로 전월(135개)보다 늘었으나 09.1~11월 평균치(168개)보다 낮은 수준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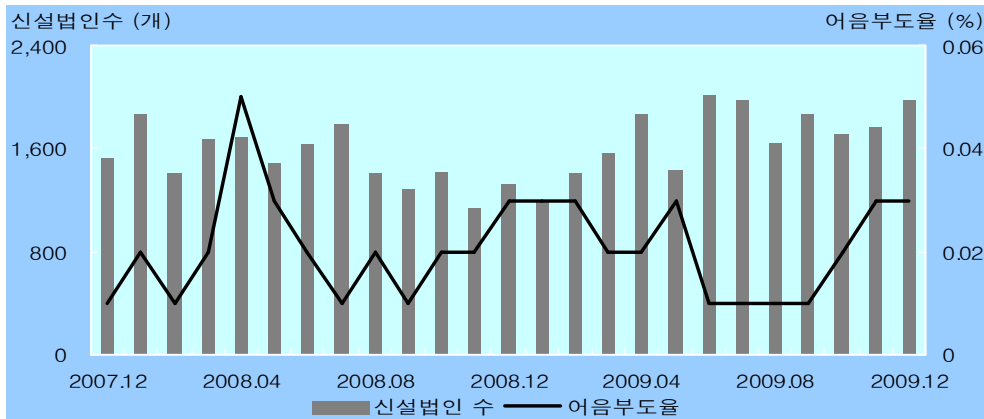
- 1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62개로 전월대비 44.2%(19개)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48.3%(58개) 감소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2	0.04	0.03	-0.01	-25.0	-0.01	-25.0
전국 부도업체 수	345	138	124	135	152	17	12.6	-193	-55.9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1	0.02	0.03	0.03	0	0.0	0.00	0.0
서울 부도업체 수	120	57	43	43	62	19	44.2	-58	-48.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201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보증 건수 및 금액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월중 1,997건, 24,582백만원 공급하여 전년 동월 대비 건수 기준 14.5%, 금액 기준 45.1%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건수 44.%, 금액 52.4% 감소하였음
- 2009년말 자금수요에 따른 조기 처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신용보증 공급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 1월 29일 「2010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이 공고됨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 공급 규모 증가가 예상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2,336	13,699	5,197	4,187	3,577	1,997	-1,580	-44.2	-339	-14.5	
금액	44,774	212,133	71,127	61,133	51,605	24,582	-27,023	-52.4	-20,192	-45.1	
건당평균금액	19.2	15.5	13.7	14.6	14.4	12.3	-2.1	-14.6	-6.9	-35.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비중 소폭 증가

- 1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 에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제조업은 3개월 연속 증가추세(09년 11월 : 4.6%, 09년 12월 : 4.9%, 10년 1월 : 5.26%)를 보였으며, 이는 경기회복조짐에 따라 제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업종의 등락 폭은 미미함
- 전월 대비 금액별 기준 산정시, 음식·숙박업은 전월 대비 1.2% 증가 하였으며, 건수 기준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은 상당한 감소를 보여 소액규모로 자금수요가 있었음. 서비스업은 큰 폭의 증가세(37.4% → 43.18%)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05	558	230	970	134	1,997
비율	5.26	27.94	11.52	48.57	6.71	100
금액	1,621	8,238	3,077	10,616	1,031	24,583
비율	6.59	33.51	12.52	43.18	4.19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 신용보증기관 큰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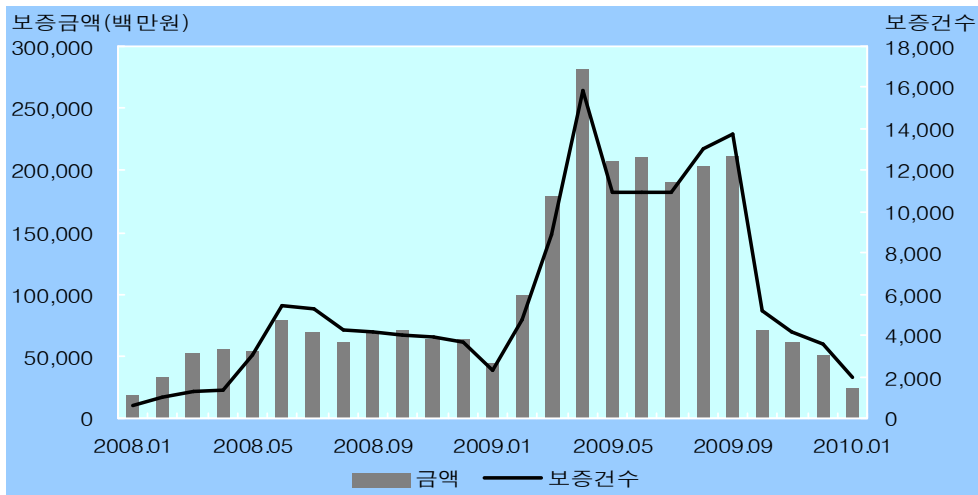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자료분석 결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비중이 건수는 99.6%, 금액으로는 96.9%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회복조짐에 따라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율이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11	2009.12	2010.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4,081	3,461	1,967	-1,494
	비율	97.5	96.8	98.5	1.7
	금액	50,334	43,322	22,419	-20,903
	비율	82.3	83.9	91.2	7.3
소기업	건수	72	81	21	-60
	비율	1.7	2.3	1.1	-1.2
	금액	7,277	5,802	1,402	-4,400
	비율	11.9	11.2	5.7	-5.5
중기업	건수	34	35	9	-26
	비율	0.8	0.9	0.5	-0.4
	금액	3,522	2,483	762	-1,721
	비율	5.8	4.9	3.1	-1.8
합계	건수	4,187	3,577	1,997	-1,58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61,133	51,605	24,583	-27,022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 수출입 1년만에 소폭 무역적자
 - 전국의 수출은 310.1억 달러, 수입은 314.7억 달러로 1년만에 4.6억 달러 소폭 무역적자 기록
 - 수출은 46.7% 증가하며 '90년대 이후 월 최대 증가폭 기록, 수입은 유가상승, 자본재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6.4% 증가
- 전국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수출에서는 반도체·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증가하였고, 수입에서는 유가상승 및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증가
 - 선박·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저조, 유가상승 및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수출은 31.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8.4% 증가하였고, 수입은 72.4억달러로 42.8% 증가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12.6%, 0.5% 감소
- 1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73,440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672,405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고,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1,133	34,507	33,957	34,075	36,010	31,007	9,874	46.7	-5,003	-13.9
	수입	24,899	29,795	30,326	29,457	32,920	31,468	6,569	26.4	-1,452	-4.4
서울	수출	1,964	3,565	3,172	3,338	3,561	3,111	1,147	58.4	-450	-12.6
	수입	5,067	7,073	6,682	6,802	7,273	7,237	2,170	42.8	-36	-0.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월		2010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8,311	13.5	373,440	874.8
2	자동차부품	69,547	-17.4	201,445	189.7
3	합성수지	70,636	-4.1	178,793	153.1
4	반도체	85,518	-15.7	171,384	100.4
5	편직물	132,812	-23.6	169,338	27.5
6	컴퓨터	82,457	-19.0	147,309	78.6
7	고무제품	100,685	6.0	141,793	40.8
8	무선통신기기	126,769	-13.1	119,714	-5.6
9	합성고무	22,012	-9.4	104,735	375.8
10	의류	61,966	-27.5	73,114	18.0
	합계	1,963,816	-32.4	3,110,726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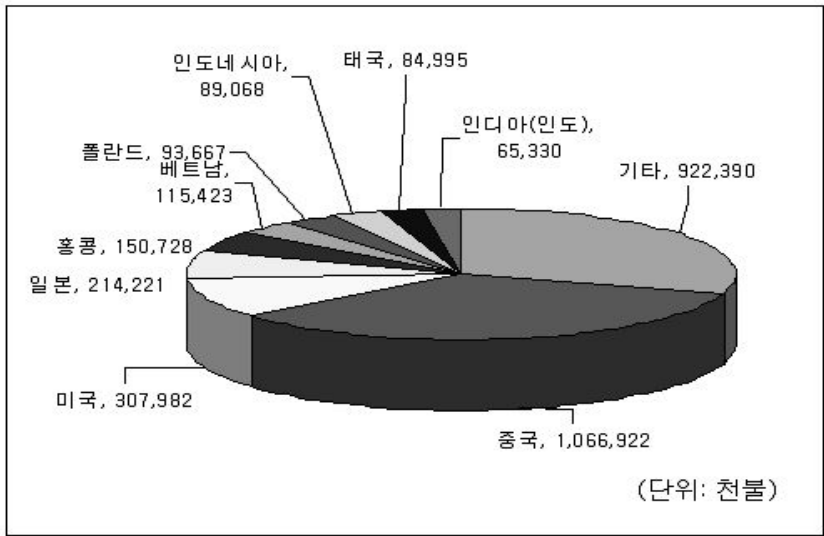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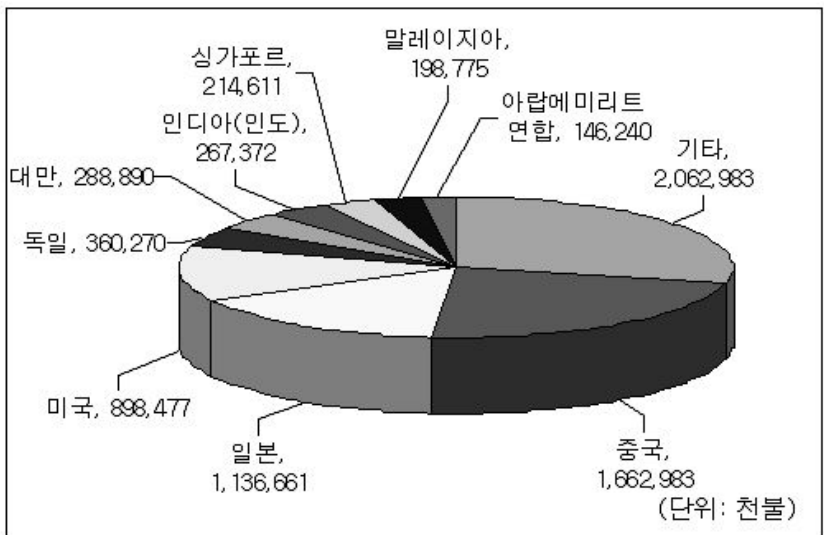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월		2010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27,404	213.8	672,405	427.8
2	반도체	500,028	16.9	663,232	32.6
3	컴퓨터	399,627	-3.6	438,154	9.6
4	의류	253,298	37.5	245,540	-3.1
5	플라스틱제품	87,024	23.2	201,134	131.1
6	자동차	108,541	-7.6	196,464	81.0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41,627	14.0	195,883	38.3
8	농약 및 의약품	112,194	0.9	161,469	43.9
9	무선통신기기	92,836	-21.1	157,253	69.4
10	LPG	116,186	-15.8	142,202	22.4
	합계	5,066,885	-31.6	7,237,262	42.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